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 발생 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정연성입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버거운 암울함이 계속 정신을 놓게 하고 있지만 제 삶의 버팀목인 고마운 아내와 두 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반성문을 적어 판사님께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1년전의 감사한 선처 이후 힘들어했던 가족을 위해 방황하던 마음을 다잡아 언제나 준법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은 지나칠 정도로 경계하며 성실히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신뢰를 저버리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 마주하게 된 저의 음주 블랙아웃 현상에 대해 아내와 심각하게 논의하였고, 술이 무서워지고 차가 무서워져 포항 북구보건소 중독관리센터를 통해 알콜 치매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나이임에 회사의 선후배들과 공감하기 위해 마셨던 술이었지만, 이제는 음주 자체를 줄이기로 항상 제 옆을 같이 지켜주는 고마운 아내와 부둥켜 울며 맹세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려준 아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죄는 짓지 않도록 영혼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 바르게 살겠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공장에서의 과책임자는 환경, 안전, 인사 등 과에 관한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0대 초반부터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했었기에 음주 운전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면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직장 내에서도 하루하루 수십 번씩 가슴을 옥죄며 반성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최근 여러 명이 회사의 낮은 임금 문제로 이직하며 많아진 일에 거의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직장 동료들은 분위기가 바뀐 걸 아는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숨막힐 듯 멍해지지만 크나큰 잘못으로 인한 벌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에 오롯이 감당하고 정신만 놓지 않기를 힘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주어진 벌을 받고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다만, 아빠가 기운 없어 보인다며 천진하게 애교를 보이는 두 아들들과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염치불구하고 선처를 혜량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직 할부가 채 끝나지 않았기에 차량을 카풀하고 있는 고마운 아내에게 양도 예정이며, 경찰조사시 제출한 자료 외에 면허 결격기간 동안 저는 직장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365일 운행하는 통근버스노선도를 제출 드립니다. 금고형 이상일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회사 취업규칙 일부와 매주 주말 두 아들들과 영어, 수학 시험을 친 자료, 기록을 찾을 수 있었던 카카오 택시 이용 내역과 최근 3년간 회사에서 받았던 표창, 상장, 안전 관련 교육 결과도 같이 제출 드립니다.

 범죄 행위가 단순히 저 하나만이 아닌, 모든 가족들에게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죄책감을 항상 깊이 간직하여 순간순간 저에게 올바른 다그침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죄 많은 저에게 한번 더 가족과 같은 하늘 아래서 지낼 수 있도록, 지금의 회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속죄하며 누구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맹세드립니다.

2021. 8. 29

피고인 정연성